

#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세미<sup>1</sup>, 염영란<sup>2\*</sup>

<sup>1</sup>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생, <sup>2</sup>조선간호대학교 조교수

## Factors Influencing on Learning Flow to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and Academic Self-Efficacy in both Online and Offline Lectures

Se-mi Lim<sup>1</sup>, Young-Ran Yeom<sup>2\*</sup>

<sup>1</sup>Ph.D.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sup>2</sup>Assistant Professor, Chosun Nursing College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몰입의 정도를 파악하고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2020년 9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G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2학년 15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25.0 program을 이용하여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몰입은 지각된 건강상태,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학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학습몰입은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학습몰입에 대한 영향요인은 학업적 자기효능감( $\beta = .44, p < .001$ ), 셀프리더십( $\beta = .35, p < .001$ ), 전공만족도( $\beta = -.14, p = .031$ )로 총 변화량의 57%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셀프리더십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몰입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egree of self-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and learning flow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o take both online and offline lectures, an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learning flow.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questionnaires from 152 students who were in 2nd year of the nursing college in G city, from September 7 to September 29, 2020.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WIN 25.0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Learning flow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ceived health status, interpersonal relationship, major satisfaction, and grades. Statistically, learning flow showed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leadership and academic self-efficacy. Influencing factors on learning flow were academic self-efficacy( $\beta = .44, p < .001$ ), self-leadership( $\beta = .35, p < .001$ ), and major satisfaction( $\beta = -.14, p = .031$ ) accounting for 57% of the total change. Based on this study, strategies to enha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are required to improve the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Learning flow

\*Corresponding Author : Young-Ran Yeompseudoan@naver.com

Received September 14, 2020

Revised October 15, 2020

Accepted November 20, 2020

Published November 28, 2020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2020학년도 1학기에 국가적 방역지침에 따라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1학기를 마친 대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강의 질 저하, 학습권 침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많은 대학에서는 2학기 수업에 있어서 코로나 19 확산 정도에 따른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미리 제시하고 단계에 맞추어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기로 하였다[1].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수업은 각각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오프라인 수업을 받는 학습자들은 교수자와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온라인 수업보다 높은 학습동기와 집중력을 형성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2]. 반면, 온라인 수업은 학습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학습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수업의 제한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3] 각광을 받고 있다. 실제로 전 세계 2만 5천명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77.8%가 온라인 수업을 경험하였고, 40.7%가 온라인 수업이 오프라인 수업만큼 효과적이라고 답하였다[4].

간호학에서는 이론 과목 뿐 아니라 실습 과목에서도 온라인 학습을 적용하여 학습만족도, 비판적 사고성향, 실무수행능력,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및 학습 성취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었기에[5-7] 온·오프라인 수업의 장점을 접목하여 병행한다면 학습자에게 만족스러운 방법의 수업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학생들은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면서 자신의 학습에 대한 목표설정을 통해 스스로 조절하며 실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학습에 얼마나 몰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셀프리더십은 학업을 흥미롭게 하여 학업 만족도를 높이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 수 있도록 개인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 셀프리더십의 발휘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8].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수행 및 성취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9], 학습자가 스스로 더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동기와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0]. 또한 온·오프라인의 혼합수업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학습에 대한 애착과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에 대한 개방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1]. 이와 같이 학습에 대한 흥미와 만족이 높아지면 높은 집중력을 가지게 되어 학습에 대한 몰입이 높아지고 학업적 자기효능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된다[10].

인간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간호학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는 개인의 인성이며, 셀프리더십을 키우는 것은 개인의 성장 뿐 아니라 사회의 진입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고[8], 셀프리더십이 높은 대학생이 취업전략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12] 셀프리더십의 강화는 간호대학생의 취업준비에도 유익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선행연구는 온라인 수업을 활용한 중재를 적용하여 그 효과를 비교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습몰입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습몰입 정도를 파악하고 학습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여 전문적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을 높이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온·오프라인 강의를 병행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습몰입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습몰입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습몰입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온·오프라인 강의를 병행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습몰입 정도와 관계를 파악하고,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년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G시 소재 C대학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1학기 때 이론교과목은 온라인, 교내실습교과목은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병행한 간호대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설문을 배부하고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설문에 답하였다. 연구 표본 크기는 G\*Power 3.1 program을 사용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 기준으로 효과크기 .2,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예측변수 12개로 설정하였을 때 필요한 표본 수는 141명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는 간호학과 2학년 재학생 총 185명 중 152명이 응답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이 없어 152명의 응답 모두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나이, 결혼상태, 건강상태, 대인관계, 전공 만족도, 학업성적, 수업 중 가장 중요한 요인, 학습 분위기 등을 조사하였다.

### 2.3.2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Houghton과 Neck[13]이 개발한 척도(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RSLQ)를 Shin[14]이 번안하고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5문항으로 자기목표설정(5문항), 자기보상(3문항), 자기차별(4문항), 자기관찰(4문항), 자기단서(2문항), 자연적 보상(5문항), 성공적 수행 상상하기(5문항), 자기대화(3문항), 신념과 가정 분석(4문항)으로 9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Shin[1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7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3이었다.

### 2.3.3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Kim과 Park[9]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8문항으로 과제난이도 선호(10문

항), 자기조절 효능감(10문항), 자신감(8문항)의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과제난이도 선호(4문항), 자신감(8문항)은 역 문항 처리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6점까지 Likert 6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Park[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과제난이도 선호 .84, 자기조절효능감 .76, 자신감 .7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과제난이도 선호 .88, 자기조절효능감 .87, 자신감 .89이었다.

### 2.3.4 학습몰입

학습몰입은 Suk과 Kang[15]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이기에 '선생님'의 명칭이 나오는 문항을 '교수님'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총 35문항으로 도전과 능력의 조화(4문항), 행동과 의식의 통합(5문항), 명확한 목표(2문항), 구체적인 피드백(5문항), 과제에 대한 집중(3문항), 통제감(2문항), 자의식의 상실(5문항), 시간감각의 왜곡(3문항), 자기 목적적 경험(6문항)으로 9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몰입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당시 Cronbach's  $\alpha$  = .94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94 이었다.

## 2.4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시행 전에 온라인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익명성 보장과 비밀 보장, 연구 도중이라도 중단 할 수 있다는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설명하고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 및 연구 설문지 모두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설문 시 소요된 시간은 약 10분 정도였다.

##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몰입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몰입에 대한 분석은 t-test와 ANOVA를 사용하였고,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대

상자의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몰입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을 사용하였으며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5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Gender	Male	12(7.9)	
	Female	140(92.1)	
Age(yr)	≤25	115(75.7)	24.85±7.29
	26~30	16(10.5)	
	31~35	5(3.3)	
	≥36	16(10.5)	
Married status	Yes	12(7.9)	
	No	140(92.1)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y	90(59.2)	
	Moderate	59(38.8)	
	Poor	3(2.0)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95(62.5)	
	Moderate	55(36.2)	
	Bad	2(1.3)	
Satisfaction of major	Satisfaction	81(53.3)	
	Usually	69(45.4)	
	Dissatisfaction	2(1.3)	
Grades	<3.0	30(19.7)	3.42±0.56
	3.0~<3.5	49(32.2)	
	3.5~<4.0	41(27.0)	
	≥4.0	32(21.1)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class	Professor's ability	13(8.6)	
	Trust between professor and student	29(19.1)	
	Academic atmosphere	48(31.6)	
	Class method	41(27.0)	
	Student participation	19(12.5)	
	Others	2(1.3)	
Academic atmosphere	Good	97(63.8)	
	Moderate	53(34.9)	
	Bad	2(1.3)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12명(7.9%), 여자가 140명(92.1%)이었고 평균 연령은 24.85세였으며 미혼이 140명(92.1%)이었다. 지각된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가 90명(59.2%)이었고, 대인관계에서 '좋다'가 95명(62.5%)이었으며 전공

만족도에서도 '만족'이 81명(53.3%)이었다. 학점은 3.0 이상 3.5미만이 49명(32.2%)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성적은 3.42점이었다. 수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학습 분위기'로 48명(31.6%)이었으며 학습 분위기가 '좋다'가 97명(63.8%)으로 가장 많았다.

#### 3.2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습몰입 정도

본 연구대상자의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습몰입 정도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Degree of Self-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and Learning flow (N=152)**

Variables	Categories	M±SD	Mini	Max	Range
Self-Leadership	Self-goal setting	3.68±0.69	1.80	5.00	1-5
	Self-reward	4.00±0.79	1.00	5.00	1-5
	Self-punishment	3.36±0.88	1.00	5.00	1-5
	Self-observation	3.71±0.55	2.00	5.00	1-5
	Self-cueing	3.99±0.70	2.00	5.00	1-5
	Natural reward	3.42±0.62	1.00	5.00	1-5
	Visualizing successful performance	3.40±0.74	1.40	5.00	1-5
	Self-talk	3.46±0.79	1.33	5.00	1-5
	Evaluating beliefs and assumptions	3.57±0.65	1.75	5.00	1-5
	Total	3.62±0.46	2.64	5.00	1-5
Academic self-efficacy	Task level preference	3.39±0.78	1.30	6.00	1-6
	Self-regulated efficacy	4.13±0.68	2.40	6.00	1-6
	Self-confidence	3.52±1.08	1.13	6.00	1-6
Total	3.68±0.62	2.04	6.00	1-6	
Learning flow	Challenge-skill balance	2.93±0.66	1.00	5.00	1-5
	Action-awareness merging	3.34±0.64	1.40	5.00	1-5
	Clear goals	3.69±0.65	2.00	5.00	1-5
	Unambiguous feedback	3.64±0.63	2.00	5.00	1-5
	Concentration on task at hand	3.69±0.60	1.67	5.00	1-5
	Sense of control	3.33±0.88	1.00	5.00	1-5
	Loss of self-consciousness	3.35±0.67	1.40	5.00	1-5
	Transformation of time	3.31±0.84	1.00	5.00	1-5
	Autotelic experience	3.07±0.77	1.00	5.00	1-5
	Total	3.37±0.49	2.06	5.00	1-5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에 평균 3.62±0.46이었다. 하부요인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자기목표설정 3.68±0.69점, 자기보상 4.00±0.79점, 자기처벌

3.36±0.8점, 자기관찰 3.71±0.55점, 자기단서 3.99±0.70점, 자연적 보상 3.42±0.62점, 성공적 수행 상상하기 3.40±0.74점, 자기대화 3.46±0.79점, 신념과 가정 분석 3.57±0.65점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6점 만점에 평균 3.68±0.62로 나타났으며 하부요인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과제난이도 3.39±0.78점, 자기조절 효능감 4.13±0.68점, 자신감 3.52±1.08점으로 나타났다. 학습몰입은 5점 만점에 평균 3.37±0.49이었다. 하부 요인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도전과 능력의 조화 2.93±0.66점, 행동과 의식의 통합

3.34±0.64점, 명확한 목표 3.69±0.65점, 구체적인 피드백 3.64±0.63점, 과제에 대한 집중 3.69±0.60점, 통제감 3.33±0.88점, 자의식의 상실 3.35±0.67점, 시간 감각의 왜곡 3.31±0.84점, 자기 목적적 경험 3.07±0.77점으로 나타났다.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습몰입 정도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습몰입 정도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Degree of Self-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and Learning flow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5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Self-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Learning flow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Gender	Male	12(7.9)	3.58±0.36	-0.36 (.719)	3.90±0.75	1.26 (.209)	3.42±0.58	0.37 (.713)
	Female	140(92.1)	3.63±0.46		3.66±0.60		3.37±0.48	
Age (yr)	≤25	115(75.7)	3.63±0.48	0.22 (.880)	3.69±0.61	0.76 (.518)	3.39±0.46	2.09 (.104)
	26~30	16(10.5)	3.54±0.36		3.50±0.68		3.17±0.57	
	31~35	5(3.3)	3.68±0.30		3.54±0.25		3.08±0.54	
	≥36	16(10.5)	3.62±0.46		3.81±0.69		3.52±0.52	
Married status	Yes	12(7.9)	3.62±0.37	0.02 (.981)	3.90±0.69	1.29 (.199)	3.58±0.59	1.59 (.115)
	No	140(92.1)	3.62±0.46		3.66±0.61		3.35±0.48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y	90(59.2)	3.74±0.48 <sup>a</sup>	8.18 ( $<.001$ ) a <sup>b</sup>	3.80±0.64 <sup>a</sup>	4.33 (.015) a <sup>b</sup>	3.50±0.49 <sup>a</sup>	9.06 ( $<.001$ ) a <sup>b</sup>
	Moderate	59(38.8)	3.45±0.37 <sup>b</sup>		3.53±0.55 <sup>b</sup>		3.21±0.43 <sup>b</sup>	
	Poor	3(2.0)	3.41±0.25		3.23±0.26		2.81±0.48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95(62.5)	3.75±0.46 <sup>a</sup>	12.39 ( $<.001$ ) a <sup>b</sup>	3.83±0.63 <sup>a</sup>	8.14 ( $<.001$ ) a <sup>b</sup>	3.49±0.45 <sup>a</sup>	10.00 ( $<.001$ ) a <sup>b</sup>
	Moderate	55(36.2)	3.39±0.36 <sup>b</sup>		3.43±0.52 <sup>b</sup>		3.15±0.49 <sup>b</sup>	
	Bad	2(1.3)	3.70±0.40		3.48±0.32		3.64±0.22	
Satisfaction of major	Satisfaction	81(53.3)	3.80±0.41 <sup>a</sup>	17.01 ( $<.001$ ) a <sup>b</sup>	3.80±0.63	4.42 (.014) a <sup>b</sup>	3.56±0.39	16.06 ( $<.001$ ) a <sup>b</sup>
	Usually	69(45.4)	3.42±0.42 <sup>b</sup>		3.53±0.56		3.14±0.50	
	Dissatisfaction	2(1.3)	3.14±0.20		4.20±1.04		3.50±0.71	
Grades	<3.0	30(19.7)	3.45±0.39	2.11 (.101)	3.56±0.69	1.50 (.217)	3.16±0.58 <sup>a</sup>	3.62 (.015) b <sup>a</sup>
	3.0~<3.5	49(32.2)	3.63±0.44		3.59±0.56		3.32±0.48	
	3.5~<4.0	41(27.0)	3.71±0.52		3.79±0.59		3.47±0.41	
	≥4.0	32(21.1)	3.64±0.42		3.78±0.66		3.51±0.45 <sup>b</sup>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class	Professor's ability	13(8.6)	3.65±0.68	1.36 (.243)	3.68±0.68	1.18 (.324)	3.38±0.54	1.490 (.197)
	Trust between professor and student	29(19.1)	3.68±0.39		3.58±0.56		3.31±0.56	
	Academic atmosphere	48(31.6)	3.70±0.47		3.79±0.60		3.52±0.39	
	Class method	41(27.0)	3.48±0.41		3.55±0.65		3.26±0.54	
	Student participation	19(12.5)	3.66±0.40		3.86±0.61		3.37±0.43	
	Others	2(1.3)	3.35±0.49		3.56±0.65		3.17±0.23	
Academic atmosphere	Good	97(63.8)	3.67±0.43	1.39 (.254)	3.75±0.64	2.60 (.078)	3.42±0.48	1.11 (.332)
	Moderate	53(34.9)	3.53±0.44		3.58±0.55		3.29±0.49	
	Bad	2(1.3)	3.64±0.48		3.00±0.85		3.31±0.98	

셀프리더십은 지각된 건강상태( $F=8.18, p<.001$ ), 대인관계( $F=12.39, p<.001$ ), 전공만족도( $F=17.01, p<.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사후검정 결과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보통'인 경우보다 높았고, 대인관계가 '좋다'가 '보통' 보다 높았으며 전공만족도에서 '만족'하는 경우가 '보통'보다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 효능감은 지각된 건강상태( $F=4.33, p=.015$ ), 대인관계( $F=8.14, p<.001$ ), 전공만족도( $F=4.42, p=.014$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사후검정 결과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보통'인 경우보다 높았고, 대인관계가 '좋다'가 '보통' 보다 높았으며, 전공만족도에서 '만족'하는 경우가 '보통'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몰입은 지각된 건강상태( $F=9.06, p<.001$ ), 대인관계( $F=10.00, p<.001$ ), 전공만족도( $F=16.06, p<.001$ ), 학점( $F=3.62, p=.01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사후검정 결과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보통'인 경우보다 높았고, 대인관계가 '좋다'가 '보통' 보다 높았으며 전공만족도에서 '만족'하는 경우가 '보통'보다 높았으며 학점이 '3.0미만'보다 '4.0이상'인 경우 학습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습몰입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습몰입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학습몰입은 셀프리더십( $r=.60, p<.001$ ), 학업적 자기효능감( $r=.60, p<.001$ )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셀프리더십은 학업적 자기효능감( $r=.37, p<.001$ )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Table 4. Correlations among Self-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and Learning flow (N=152)

Variables	Self-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Learning flow
	r( $\rho$ )	r( $\rho$ )	r( $\rho$ )
Self-leadership	1		
Academic self-efficacy	.37( $<.001$ )**	1	
Learning flow	.60( $<.001$ )**	.60( $<.001$ )**	1

\* $p<.05$ , \*\* $p<.001$

3.5 대상자의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대상자의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학습몰입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건강상태,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및 학점을 포함시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중 건강상태, 대인관계, 전공만족도와 학점 변수는 가변수(Dummy variables)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기본가정 충족에 대한 검토결과,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독립적이었으며, Durbin-Watson 통계량은 1.74로 잔차의 상호독립성을 만족하였다. 또한 오차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공차한계(Tolerance)는 0.63~0.98,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3~1.58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잔차의 가정을 충족하기 위한 검정결과 정규성, 선형성, 등분산성 및 상호독립성이 만족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에 대한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18.68, p<.001$ ) 수정된 결정계수는 .57이었다.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에 대한 영향요인으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beta=.44, p<.001$ ), 셀프리더십( $\beta=.35, p<.001$ ), 전공만족도( $\beta=-.14, p=.031$ )순으로 총 변화량의 57%를 설명하였다(Table 5).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Learning flow (N=152)

Variables	B	S.E	$\beta$	t	$p$
(constant)	.83	.29		2.84	.005*
Self-leadership	.37	.07	.35	5.19	$<.001$ **
Academic self-efficacy	.35	.05	.44	7.29	$<.001$ **
Major satisfaction <sup>a</sup> _usually	-.13	.06	-.14	-2.18	.031*
$R^2=.60$ , Adj. $R^2=.57$ , $F=18.68$ ( $p<.001$ )					

\* $p<.05$ , \*\* $p<.001$

<sup>a</sup>Dummy variable(Major satisfaction reference group: Satisfaction)

4. 논의

본 연구는 온·오프라인 강의를 병행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습몰입을 중심으로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학습몰입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에 평균 3.62점으로 보통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다른 연구에서의 셀프리더십 점수는 3.49점 [16], 3.53점 [17]으로 나타나 온-오프라인 강의를 병행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일정하게 정해진 오프라인 강의 일정에 비해 코로나 19의 상황에 따라 변하는 온-오프라인 강의 일정에 맞추어 학생들은 스스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구상하는 행동과 함께 자연스럽게 셀프리더십도 증가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셀프리더십의 하부요인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자기보상 4.00점, 자기단서 3.99점, 자기관찰 3.71점, 자기목표 설정 3.68점, 신념과 가정 분석 3.57점, 자기대화 3.46점, 자연적 보상 3.42점, 성공적 수행 상상하기 3.40점, 자기처벌 3.36점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Lee[17]의 연구는 행동적 전략(자기보상, 자기목표 설정 등) 4.08점, 인지적 전략(환경조성, 내적보상 집중 등) 3.48점 순으로 나타났고, Kim과 Park[16]의 연구는 자기보상 3.90점, 자기기대 3.73점, 자기비판 3.64점, 목표 설정 3.60점, 건설적 사고 3.32점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로 하위요인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나, 하위요인 중 자기보상은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은 좋은 결과가 있을 때 스스로를 격려하고 보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6점 만점에 평균 3.68점으로 보통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에서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점수는 3.53점 [19]으로 나타나 온-오프라인 강의를 병행한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온라인 강의의 경우, 학생은 스스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주도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학습하기에 학습의 양이나 내용을 결정 및 판단하기 위한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더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하부요인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자기조절 효능감 4.13점, 자신감 3.52점, 과제난이도 3.39점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Kim과 Park[16]의 연구는 자기조절 효능감 3.45점, 자신감 3.30점, 과제난이도 2.90점 순으로 나타났고,

Lee[17]의 연구는 자기조절 효능감 3.32점, 자신감 3.23점, 과제난이도 선호 2.77점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간호대학생은 학업적 자기효능감 중에서도 자기조절 효능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을 선택하고 계획하여 효과적으로 학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학습몰입은 5점 만점에 평균 3.37점으로 보통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16]에서의 학습몰입 점수는 3.34점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부 요인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명확한 목표 3.69점, 과제에 대한 집중 3.69점, 구체적인 피드백 3.64점, 자의식의 상실 3.35점, 행동과 의식의 통합 3.34점, 통제감 3.33점, 시간감각의 왜곡 3.31점, 자기 목적적 경험 3.07점, 도전과 능력의 조화 2.93점 순으로 나타났다. Kim과 Park[16]의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피드백 3.60점, 통제감 3.60점, 과제에 대한 집중 3.59점, 명확한 목표 3.50점, 자의식의 상실 3.42점, 행동과 의식의 통합 3.33점, 시간과 감각의 왜곡 3.33점, 자기 목적적 경험 3.07점, 도전과 능력의 조화 2.97점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학습몰입 중에서도 도전과 능력의 조화 영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간호대학생은 주어진 문제나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거나 도전하는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상에서의 간호사는 문제해결능력을 갖추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토론 및 피드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20]이 포함된 과제 또는 실습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겠다.

본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은 지각된 건강상태( $F=8.18$ ,  $p<.001$ ), 대인관계( $F=12.39$ ,  $p<.001$ ), 전공만족도( $F=17.01$ ,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선행연구에서도 셀프리더십은 전공만족도 [17]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 전공에 만족할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셀프리더십은 학업효과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8]되고 있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Kim [18]의 연구에서는 성별, 학년, 성적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2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반복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결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지각된 건강상태( $F=4.33, p=.015$ ), 대인관계( $F=8.14, p<.001$ ), 전공만족도( $F=4.42, p=.014$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선행연구에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건강상태[19]와 전공만족도[17,18]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전공에 만족할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Kim[18]의 연구에서는 성적이 높은 군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생의 교육의 질이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8]되었기에 온·오프라인 강의를 병행한 후 강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겠다.

본 연구에서 학습몰입은 지각된 건강상태( $F=9.06, p<.001$ ), 대인관계( $F=10.00, p<.001$ ), 전공만족도( $F=16.06, p<.001$ ), 학점( $F=3.62, p=.015$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a와 Lee[10]의 연구에서도 학습몰입은 학점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 학점이 높은 간호대학생이 학점이 낮은 간호대학생보다 학습몰입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신체적, 심리적 상태가 안정적인 상태일 때와 동료의 지지가 학습에 깊게 몰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결과[21]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학습몰입 정도가 높다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습몰입은 셀프리더십( $r=.60, p<.001$ ), 학업적 자기효능감( $r=.60, p<.0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셀프리더십은 학업적 자기효능감( $r=.37, p<.0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18]의 연구에서도 셀프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셀프리더십이 대학생 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의 관계에서 대학생활 만족도가 매개효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8, 18]를 토대로 추후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여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학습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학업적 자기효능감( $\beta=.44, p<.001$ ), 셀프리더십( $\beta=.35, p<.001$ ), 전공만족도( $\beta=-.14, p=.031$ )순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모

형의 총 변화량의 57%를 설명하였다. 1-4학년까지 간호대학생에게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한 연구에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 전공만족도 순으로 학습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58%[16]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에서 학습몰입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라는 결과를 뒷받침해주는 연구라 할 수 있겠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스스로 더 많이 배우고자 학습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며, 셀프리더십은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내적 과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 중 하나이며[8], 전공만족도는 적성에 의한 진학으로 학과에 대한 흥미를 가짐으로써 학습 자신감을 갖고 학습에 몰두할 수 있어[16] 학습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다. 국가 재난 상황 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학습 환경과 학습 형태의 교육방법이 이루어질 수 있어 온·오프라인 통합교육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온·오프라인 강의를 병행함에 있어서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 학습몰입 뿐만 아니라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 지역 온·오프라인 강의를 병행한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간호대학생은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점이 높을수록 학습몰입 정도가 높았다.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업적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 전공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셀프리더십은 중요한 요소로서 저학년부터 단계별로 향상시켜주면 학습에 대한 도전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간호역량도 키워질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개 대학 2학년으로 제한시켰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전체 간호대학생에게 일반화하기엔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일 지역의 1개 대학 간호대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대상자를 확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오프라인 수업을 교내실습교과목만 실시하였으므로 추후 이론교과목까지 오프라인 수업으로 병행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추후 학습몰입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예측요인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단계별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해 볼 것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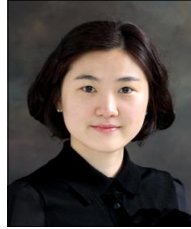
## REFERENCES

- [1] Dong-A daily news. (2020). *Online and offline parallelism is trend*, Dong-A daily news. (Online).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716/101990952/1>
- [2] S. H. Lee. (2020). Factors contributing to learners' academic motivation and concentrat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11(2), 731-743.
- [3] S. Kim & Y. Cho. (2018). Proliferation of online learning and the implications for teaching and learning in future university education.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14(4), 51-78.
- [4] J. Yu & Z. Hu. (2016). *Is online learning the future of education?*, World economic forum(Online). <https://www.weforum.org/agenda/2016/09/is-online-learning-the-future-of-education/>
- [5] H. K. Oh. (2015). Effects of self-directed learning and learning achievement in nursing education course based on blended learning.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5(4), 529-538. DOI : 10.35873/ajmahs.2015.5.4.053
- [6] S. H. Choi, H. S. So, J. Y. Choi, S. H. Yoo, S. Y. Yun, M. H. Kim, & M. O. Song. (2014). Comparison of blended practicum combined e-learning between cooperative and individual learning on learning outcome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 341-349. DOI: 10.5977/jkasne.2014.20.2.341
- [7] N. Y. Kim. (2016). Effects of online blended learning-based nursing diagnosis course in undergraduate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8(5), 2843-2855.
- [8] Y. J. Lee & K. S. Jung. (2018).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 self-leadership and campus-life satisfaction level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academic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5(1), 391-410. DOI: 10.21509/KJYS.2018.01.25.1.391
- [9] A. Y. Kim & I. Y. Park (200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cademic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9(1), 95-123.
- [10] R. Ma & E. Lee. (2017). Factors affecting academic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10), 521-531. DOI: 10.14257/ajmahs.2017.10.90
- [11] J. E. Cha & H. J. Kang. (2020). Effects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education combined with online learning on self-directed learning preparation,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confidence on core basic nursing skill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2(1), 433-446. DOI: 10.37727/jkdas.2020.22.1.433
- [12] J. S. Yi & K. A. Kim. (2012).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self-leadership on the employment strategies. *Journal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16(2), 19-39.
- [13] J. D. Houghton & C. P. Neck. (2002). Two decades of self-leadership theory and research.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1(4), 270-295.
- [14] Y. K. Shin. (2009).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RSLQ) for Korean college students*. Hoseo University, Cheonan.
- [15] I. Suk & E. Kang. (200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learning flow Scale.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23(1), 121-154.
- [16] S. H. Kim & S. Y. Park. (2014). Factors influencing on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3), 1557-1565. DOI: 10.5762/KAIS.2014.15.3.1557
- [17] O. S. Lee.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9), 6036-6043. DOI: 10.5762/KAIS.2015.16.9.6036
- [18] J. I. Kim. (2018).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emotional intelligence,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5), 253-262. DOI: 10.5762/KAIS.2018.19.5.253

- [19] J. A. Seong. (2018).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job-seeking stres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2(4), 25-35.
- [20] S. Y. Kwak, Y. S. Kim, K. J. Lee, & M. Y. Kim. (2017). Influence of nursing informatics competencies and problem-solving ability on nursing performance ability among clinic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3(2), 146-155.  
DOI: 10.5977/jkasne.2017.23.2.146
- [21] H. J. Park. (2017). Nursing students' experience of learning flow. *Global Health Nursing*, 7(2), 79-88.

임 세 미(Se-mi Lim)

[정회원]



- 2013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과 석사
- 2014년 9월 ~ 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과 박사생
- 2016년 9월 ~ 2019년 8월 : 동강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 E-Mail : nccsemi@gmail.com

염 영 란(Young-Ran Yeom)

[정회원]



- 2007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 2019년 8월 :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박사
- 2017년 3월 ~ 2019년 8월 : 동강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9년 8월 ~ 현재 : 조선간호대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 E-Mail : pseudoan@naver.com